



CHAPTER 02

마약류별 일반현황

-
1. 아편, 헤로인
 2. 코카인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중향정물질[NPS]
 4. 대마



1. 아편, 헤로인¹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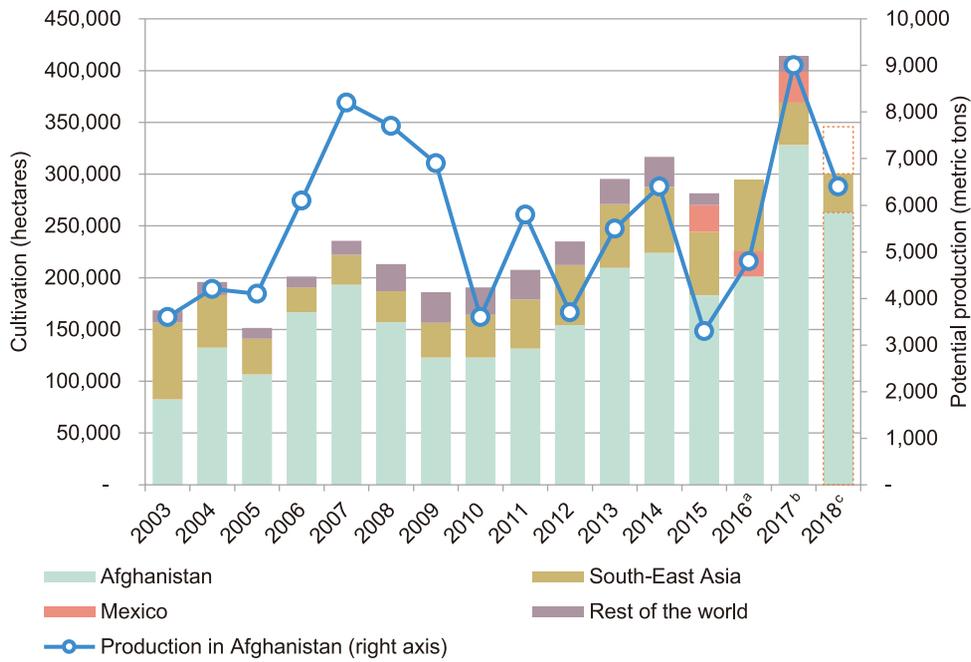
-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및 아편 적발량 감소
 - 아프가니스탄 및 미얀마는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 겨울 가뭄으로 인해 2018년 경작 면적이 2017년 보다 감소함(2018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10년 전 대비 60% 증가한 수준인 346,000ha)
 - 2018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은 약 7,790톤으로 2017년 대비 25% 감소하였고, 그 중 1,225~1,525톤은 가공되지 않고 아편으로 소비되었으며, 487~737톤 가량은 헤로인으로 가공되었음
 - 2018년 세계 아편 적발량의 95~100%는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시아(이란, 파키스탄)가 차지하였고 2017년 사상 최대 적발량(690톤)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함(678톤)

- 헤로인 세계 적발량은 78톤(최대 추정치)
 - 2018년 헤로인은 북미, 유럽, 아·태지역에서 대부분 적발되었고 적발량은 2017년 102톤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72~78톤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파키스탄, 터키, 미국의 적발량이 전 세계의 63~84%를 차지하는 추세임

¹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1, "EXECUTIVE SUMMARY", vol.3, "DEPRESSANTS", 제63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발간 자료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abuse",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 라오스 및 미얀마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아·태지역으로 공급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발칸국가, 이란, 파키스탄을 경유(최근에는 아프리카 경유 증가)하여 유럽으로 공급되며, 남미 지역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주로 미국으로 공급됨

[그림 2-1] 2003년~2018년 지역별 양귀비 경작량(cultivation)



※ 출처 :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보고서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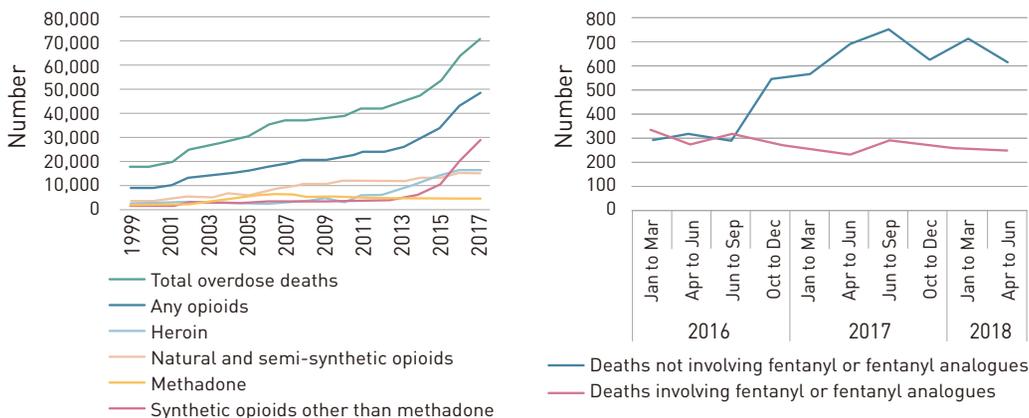
- ④ 2017년에 아편제(Opiates)² 남용자의 수는 2,9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약 0.6%로 2016년 1,940만 명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임
- ④ 2018년 성인 인구(15~64세) 중 아편제 남용자의 수는 서·중동·서남아시아 지역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남아시아 지역이 1.3%, 중앙아시아·트랜스코카시아(Transcaucasia) 지역이 0.9%를 기록함
- ④ 2017년에 헤로인을 포함한 아편유사제(Opioids)³ 남용인구는 5,3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약 1.1%로 2016년 3,430만 명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임
- ④ 2018년 성인 인구(15~64세) 중 아편유사제 남용인구는 북미 지역이 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오세아니아 지역이 3.3%, 서·중동·서남아시아 지역이 2.3%, 남아시아 지역이 1.8%를 기록함
- ④ 美 질병관리본부(CDC) 등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마약남용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한 약 68,000명(美 국립마약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는 2017년 70,237명, 2018년 67,367명으로 파악)이며, 이중 약 절반가량이 펜타닐 등 아편유사제(Fentanyl and other synthetic opioids) 남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됨

² 아편제(Opiates)는 아편(Opium),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양귀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 또는 추출된 알칼로이드 [유엔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2019]

³ 아편유사제(Opioid)는 아편 첨가제(Opiates)를 포함한 펜타닐(Fentanyl), 메타돈(Methadone) 등 합성 유사체 (Synthetic compounds)를 통칭[유엔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 199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해 온 미국의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9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약 58명(2017년, 美 질병관리본부(CDC) 기준)임
- 캐나다에서는 2017년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998명으로 2016년 대비 33%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10.9명이며, 2018년에는 4,588명이 아편유사제 (주로 펜타닐) 남용으로 사망하여 인구 10만 명당 1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 2017년 아편유사제를 비 의료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수는 전 세계 성인 인구(15세 ~ 64세)의 1.1%에 해당하는 약 5,300만 명 수준이며, 전 세계 아편유사제 사용자 수의 약 55%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약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주 지역에 거주함
- 호주에서 2016년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045명이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또는 헤로인으로 인하여 사망함

[그림 2-2] 미국과 캐나다의 마약류 관련 사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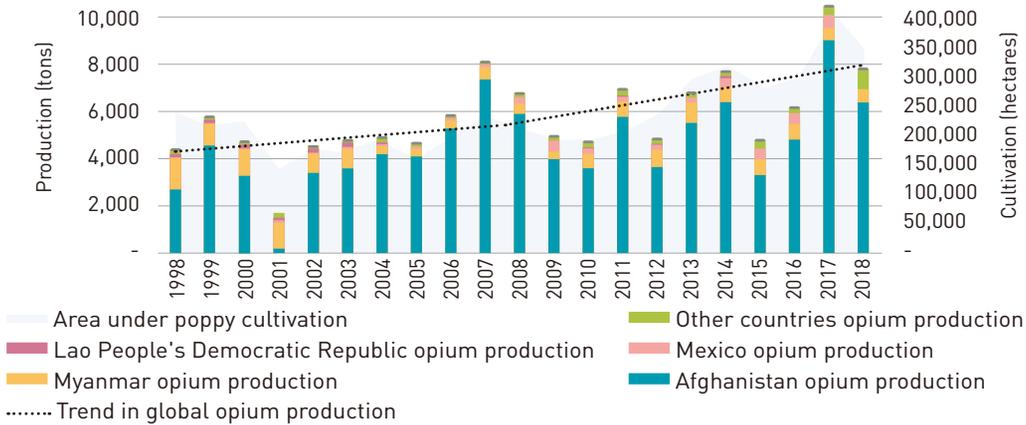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3. 생산 동향

- 2018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2017년(328,000ha) 대비 20% 감소한 263,000ha로 세계 재배면적의 76% 수준임. 2018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은 7,790톤으로, 그 중 6,265~6,565톤이 헤로인 제조에 사용되어 세계 헤로인 총생산량은 486~736톤임

[그림 2-3]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199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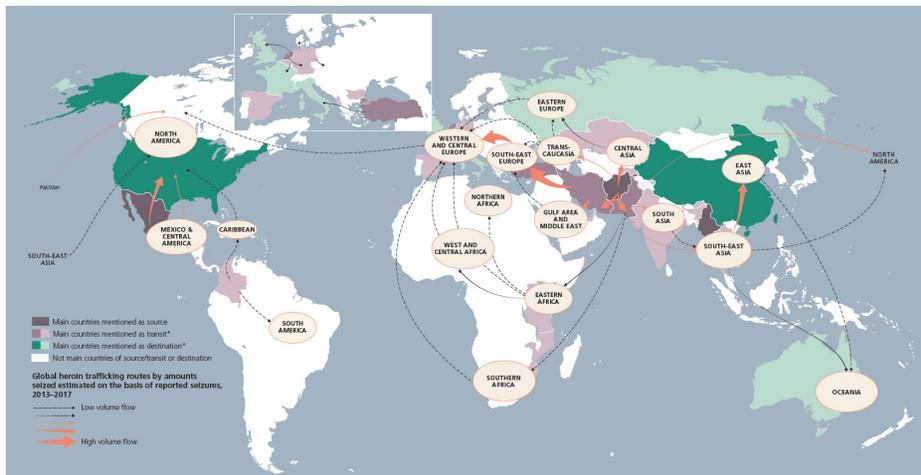
4. 밀매 동향

- ④ 2017년 세계 아편제의 압수량은 693톤으로 2016년 대비 5%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17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103톤으로 2016년 대비 13% 증가, 2017년 세계 모르핀 압수량은 87톤으로 2016년 대비 33% 증가함
- ④ 2018년 세계 아편제 압수량은 약 678톤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약 78톤이고, 2018년 세계 모르핀 압수량은 약 39톤으로 2017년 대비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아프가니스탄 내 모르핀 압수량이 2017년 대비 70% 가량 감소함에 따라 급감한 것으로 분석됨
- ④ 대부분의 아편제는 아편을 생산하는 지역(아프카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등)과 그 인접 지역에서 압수되고 있고, 2017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세계 아편제 총압수량의 86%가 적발됨
- ④ 2017년 세계 아편제 총압수량의 39%가 이란에서 적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26%, 파키스탄에서 14%, 터키에서 7%, 미국과 중국에서 각 4%가 압수됨
- ④ 2017년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16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은 2016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유럽 지역은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9%가 증가한 반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2년 연속 감소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압수량이 보고됨
- ④ 아프가니스탄 산(産) 아편류의 밀수 경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 남아시아, 걸프, 중동, 아프리카 및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남부 루트(Southern Route)',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이동하는 ‘북부 루트(Northern Route)’, 이란과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경유하여 러시아 연방 및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코카서스 루트(Caucasus Route)’가 있음

- ④ 특히 발칸 루트는 세계 최대 헤로인 밀매 경로로, 2017년 발칸 루트에서 압수된 헤로인과 모르핀의 양은 2017년 전체 압수량의 47%에 해당하며, 중·서유럽 지역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 이상이 발칸 루트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보고됨
- ④ 아프가니스탄 산을 제외한 아편제의 공급원은 주로 동남아시아(특히 미얀마)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인접국가, 중국 등의 동아시아 지역 또는 오세아니아(주로 호주) 지역으로 밀수입됨
 - ※ 2008년에는 호주의 헤로인 압수량 중 26%만이 동남아시아 산으로 보고되었으나, 2017년 호주의 헤로인 압수량 중 99%가 동남아시아 산으로 보고됨

[그림 2-4]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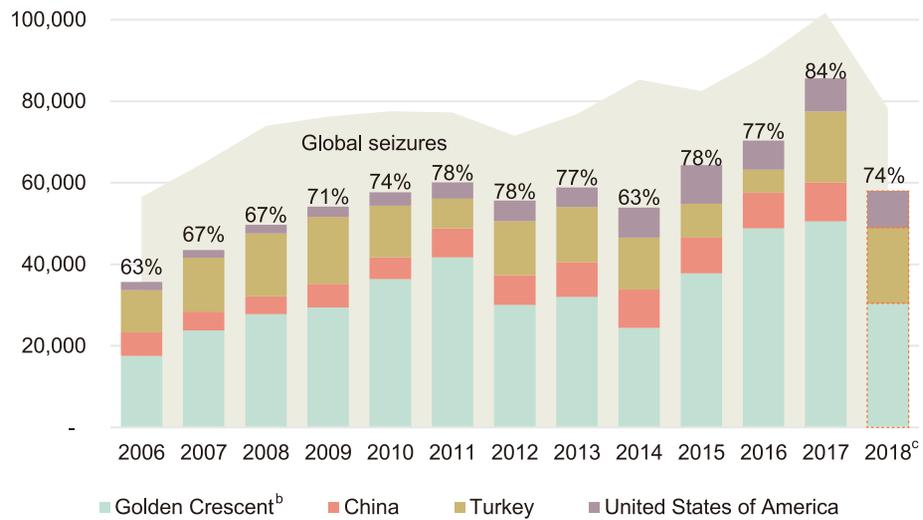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그림 2-5] 2006년~2018년 지역별 헤로인 압수현황

(단위: kg)

Heroin seizures worldwide and in selected countries and regions (2006–2018)^a

(Kilograms)



^a Data for 2018 are preliminary.

^b The Golden Crescent includes Afghanista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Pakistan.

^c 2018 heroin seizure data from China were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writing.

※ 출처 :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보고서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표 2-1]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검거인원	5	0	4	0	0	3	1	1	1	0
압수량(g)	81	0	3.5	0	0	4.54	0.03	3.73	1.93	0

- 1990년대 초반까지 헤로인 밀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었음
-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국인 투약사범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주요 헤로인 밀수사건

- ④ 2006. 6.경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바지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4개는 항문 안에, 2개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각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09. 7.경 대만인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항문 안에 5~6개씩 은닉하여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3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8.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헤로인 7.7g을 콘돔에 넣어 입 속에 은닉한 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5. 6.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65g을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5. 11.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2.54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④ 2016. 12.경 미국인이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03g을 밀수입 (대전지검)
- ④ 2017. 3.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3.73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3.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1.93g을 밀수입 (인천지검)

2. 코카인⁴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 ◆ 2018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2017년 수준 유지
 - 세계 코카나무(Coca bush) 경작량(Cultivation)은 2000년 ~ 2013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역대 최고치(245,400ha)를 기록하였고, 2018년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임(246,218ha)
 - 2018년 주요 생산국 코카나무 경작량은 볼리비아(6%)와 콜롬비아(1.2%)의 경우 2017년 대비 감소, 페루(4.4%)는 증가함

- ◆ 코카인 제조지역의 확산
 - 코카인 제조지역은 코카나무 생산국(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이 아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국가이며, 최근에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적발사례가 보고됨
 - 유럽지역의 코카인 남용인구는 약 4백만 명(세계 남용인구 1천8백만 명의 약 22%)으로 추정되고, 2017년 유럽 코카인 소매 시장은 약 90억 유로(한화 약13조원, 유럽 전체 마약시장의 31%) 규모임
 - 유입경로는 '남미에서 생산 → 모로코,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자메이카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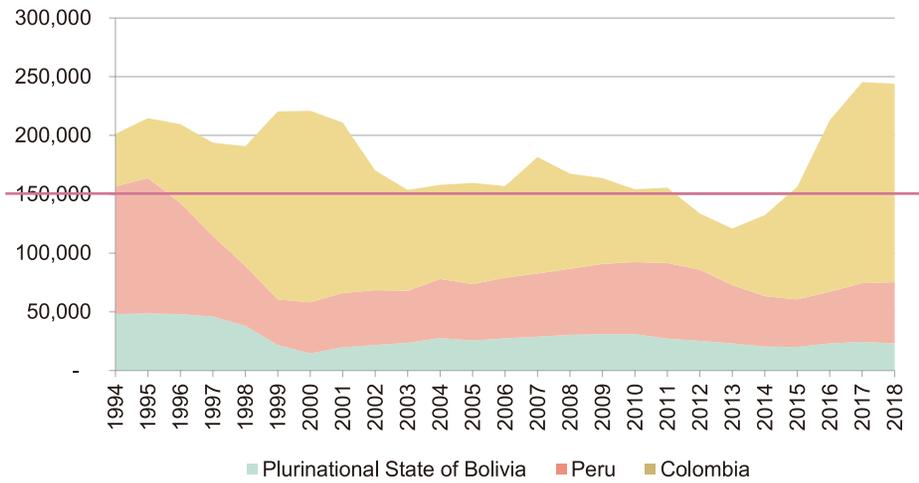
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1, "EXECUTIVE SUMMARY", vol.4, "STIMULANTS", 제63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발간 자료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abuse",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 2019".

경유 → 유럽시장으로 유입'이며, 주요 소비국별 코카인 도매가격(유로/kg)은 네덜란드 25,000, 벨기에 28,650, 스페인 35,415, 노르웨이 37,773, 슬로베니아 40,000, 이탈리아 40,918, 폴란드 50,000, 슬로바키아 70,000임

[그림 2-6] 코카나무 경작량 변동 추이

Coca bush cultivation 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olombia and Peru (1994–2018)^b

(Hectares)



※ 출처 :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보고서



2. 소비(남용) 동향

- 2017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는 1,81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의 30% 이상인 59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20% 이상인 420만 명이 중·서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약 15%에 해당하는 270만 명이 남미 지역에 거주함
- 2017년 인구 대비 코카인 남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인구의 2.2%가 코카인을 남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인구의 2.1%, 중·서유럽 지역이 인구의 1.3%, 남미 지역이 인구의 1.0%가 코카인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생산 동향

- 코카는 주로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들에서 재배되며 특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됨
- 2017년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은 245,400ha로 2016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특히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은 171,000ha로 2013년 대비 약 3.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의 70%에 달함
- 볼리비아와 페루는 대체작물 개발과 집중적인 코카 재배 제거 노력으로 볼리비아는 2010년부터, 페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코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17년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은 2016년



대비 6% 증가한 24,500ha, 페루의 코카 재배면적은 2016년 대비 14% 증가한 49,900ha임

※ 코카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코카 재배가 대체작물 재배보다 수익이 크고,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기법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카 재배면적이 급증

④ 2018년(잠정)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의 코카 재배 면적은 246,218ha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재배 면적은 2017년 대비 6% 감소한 23,100ha, 콜롬비아는 1.2%가량 감소한 169,000ha, 페루는 4.4% 증가한 52,100ha⁵임

④ 2017년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1,976톤으로 2016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이는 역사상 최대치이며, 특히 콜롬비아의 2017년 코카인 제조량은 1,379톤으로 2016년 대비 31% 급증함

※ 코카인의 재배면적 증가와 코카인 제조기법의 향상에 따른 결과임

[그림 2-7] '19. 4. 콜롬비아 경찰의 코카인 제조시설(콜롬비아 Caucasia지역) 단속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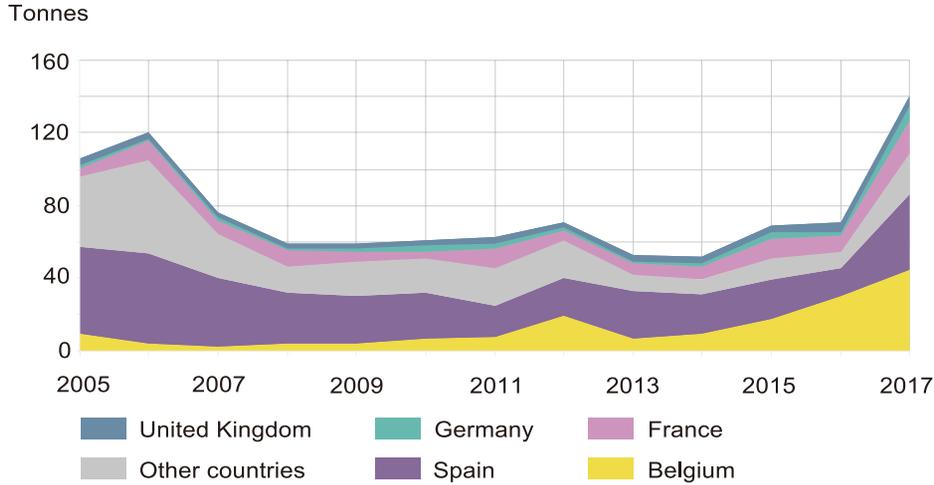
※ 출처 :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2019)

⁵ 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releases data on coca cultivation and production in Peru", 30 September 2019.

4. 밀매 동향

- ④ 2017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2016년 대비 13% 증가한 1,275톤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그 중 압수량의 38%가 콜롬비아에서 압수되었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19%가 압수되는 등 미주 지역에서 세계 코카인 총 압수량의 90%가 적발됨
- ④ 2018년(잠정) 세계 코카인 총 압수량은 약 1,014톤으로, 남미 지역의 압수량이 2017년에 정점에 달했다가(748톤) 2018년에는 656톤으로 감소했고, 같은 해 미국 내 압수량도 2017년(223톤) 대비 73% 감소한 60톤으로 보고됨
- ④ 코카인의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특히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의 경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압수되거나 미국으로 향하다 압수된 코카인의 양은 북미 지역 코카인 총 압수량의 94%에 해당함
- ④ 두 번째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2017년 중·서유럽 지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양은 141톤으로 2013년 압수된 코카인의 양(65톤)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으로 밀반입된 코카인의 74%가 콜롬비아産이며, 21%가 페루産, 4%가 볼리비아産으로 보고됨

[그림 2-8] 2005년~2017년 유럽 지역 코카인 압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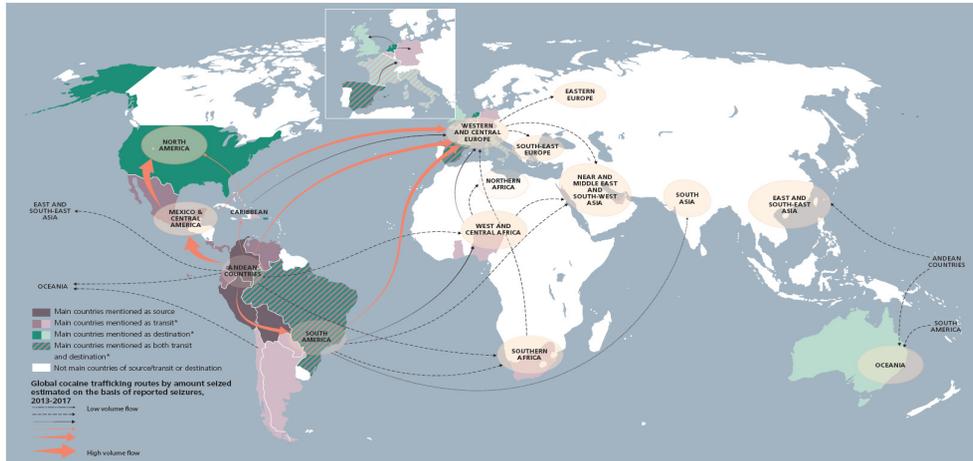
※ 출처 :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2019)

- ④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변동이 심한 편이며, 2017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2.8톤으로 2016년 대비 56% 감소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3.4톤으로 2015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임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주로 브라질에서 밀수입 되었으며, 주요 밀수 경로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을 경유하여 중국 또는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경로임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의 98%가 호주에서 적발, 호주의 2017년 코카인 압수량은 4.1톤으로 2013년 코카인 압수량(1톤)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47개 국가에서 밀수입되었는데 주로 미국에서 밀수입됨

※ 코카인이 주 소비국인 북미 지역에서 오세아니아로 밀수입되는 이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도매가격이 북미 지역 등 타국가의 코카인 도매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임⁶

⁶ 2016년~2017년 코카인 도매가격(1kg): 호주(136,000\$~226,000\$), 미국(4,000\$~50,000\$), 콜롬비아(1,500\$), 페루(88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4, "STIMULANTS"

[그림 2-9]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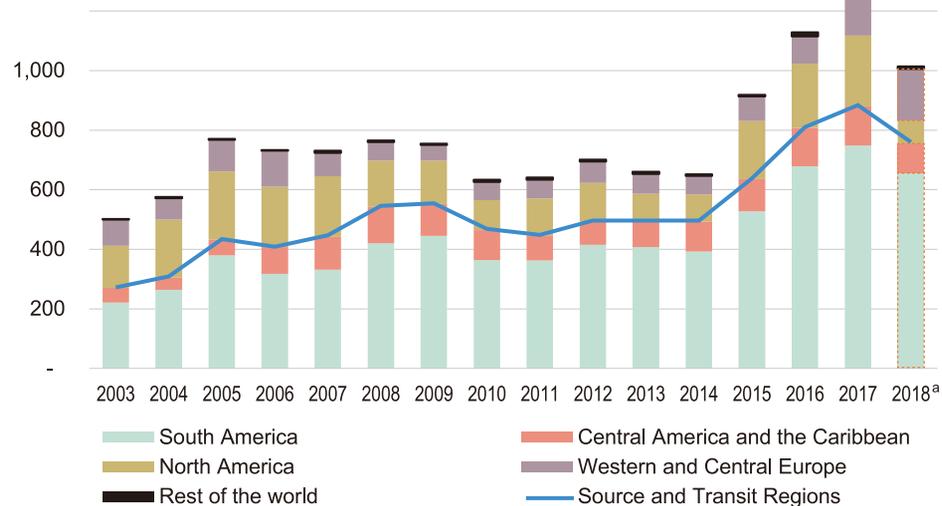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그림 2-10] 2003년~2018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Global seizures of cocaine (base, paste and salts), by region (2003–2018)^a

(Tons)



^a Data for 2018 are preliminary.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2019)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표 2-2]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검거인원	0	4	3	8	5	4	6	6	22	14
압수량(g)	0	2,153	63.62	1,215	11	10	10,943	131	88,321	106,932

- 1988. 10.경 서울중앙지검이 미국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한 코카인 10g을 적발(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한 것을 필두로 1990. 2.경 부산동부지청이 코카인 150g을 밀매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990. 9.경 서울중앙지검이 국제 코카인 밀수조직을 적발하여 코카인 976g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짐
- 2014년에는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8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5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2.8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 2016년에는 독일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한 사건, 2017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01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7.46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2019년에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등 밀수입한 사건,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을 항공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등 유학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마약사범들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6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 최종목적지인 제3국(홍콩)으로 코카인 약 10kg을 밀수입 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2018년에는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13kg을 카타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마카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6.8kg을 카타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마카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콜롬비아인이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코카인 약 3kg을 상파울루, 두바이 및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라오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성명불상자가 에콰도르 과야킬항에서 코카인 약 63.88kg 선적한 후 멕시코 만자니요항 및 부산항을 경유하여 중국 신강항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부산항에서 적발된 사건, 2019년에는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라오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등 코카인 대량 밀수입 사건은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홍콩, 마카오, 라오스 등으로 밀수출하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



주요 코카인 밀수사건

- 2004. 4.~5.경 캐나다인이 홍콩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지시로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으로 밀수출 (수원지검)
- 2004. 11.경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g을 국제 특급우편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인천지검)
- 2007. 4.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3.2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8.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5.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9.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3.6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부산지검)

- ① 2013.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약 9.72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성남지청), ②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2.13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대전지검), ③ 2013. 1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18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3. 11.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13.3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4. 1.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4. 2.경 미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약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4. 2.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7.8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5. 10.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② 2015. 10.경 캐나다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5. 1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④ 2015. 12.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6. 4.경 독일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6. 9.경 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6.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6.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6.96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6.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3.95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⑤ 2016. 10.경 캐나다인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4.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7. 4.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01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② 2017.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7.46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③ 2017. 12.경 우리 국민이 홍콩에서 코카인 60g을 휴대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① 2018. 1.경 중국 국적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6.8kg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2개를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8. 3.경 루마니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1.3kg이 은닉된 노트북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8. 11.경 성명불상자가 에콰도르에서 코카인 63.88kg을 선적한 후 부산항에 입항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④ 2018. 11.경 콜롬비아인이 파나마에서 코카인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8. 12.경 중국 국적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13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9. 6.경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코카인 불상량이 함유된 와인 10병(총중량 13kg 상당)을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9. 6.경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대마 20.35g 등을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9. 7.경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9. 8.경 선장(필리핀인)이 코카인 약 100kg을 신고 콜롬비아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해상에 진입하여 밀반입 (해경, 서산지청), ⑤ 2019. 9.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항공특급우편 이용하여 코카인 16.17g, MDMA 300정 등 밀수입 (수원지검)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⁷

1. 세계 동향 개요

- ◆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적발은 북미 및 아·태지역에 집중
 - 2018년 ATS 적발량은 북미 및 아·태지역에 집중되었고, 지역별 비율은 북미 55%, 아·태 33%, 유럽 11% 등으로, 대표적 ATS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2012년 ~ 2015년 아프리카, 유럽,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2018년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117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2017년 대비 33% 증가한 82톤을 적발하여 5년 연속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멕시코로 원료물질이 유입되어 멕시코에서 제조된 메트암페타민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2008년 이후 (2016년 및 2018년 제외)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적발된 메트암페타민의 75% 이상은 메콩강 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국가에서 정제형 또는 결정형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음

⁷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1, "EXECUTIVE SUMMARY", vol.4, "STIMULANTS", 제63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발간 자료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abuse",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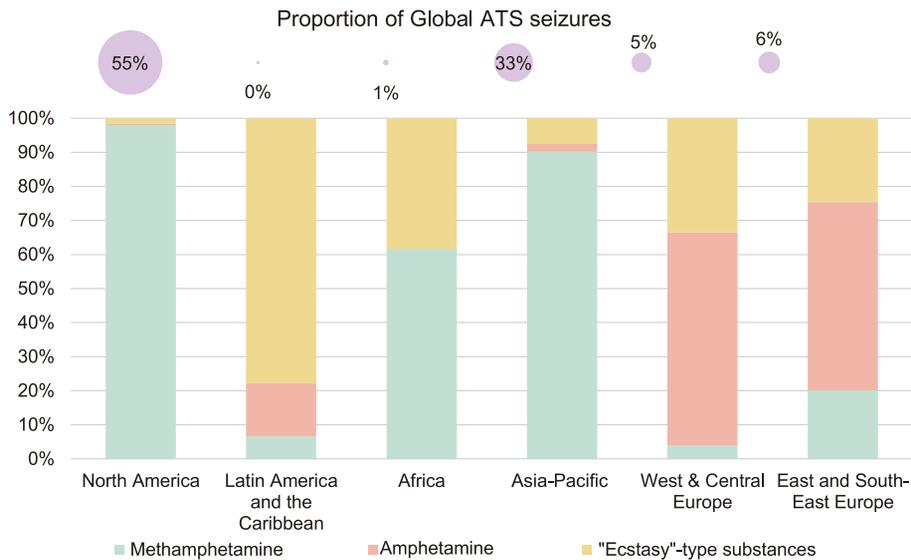
④ 엑스터시(MDMA) 적발량은 소폭 감소

- 북미 및 아·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엑스터시는 2018년 12,393kg이 적발(2017년 대비 4% 감소)되었으며, 북미 지역 적발량은 증가한 반면 아·태지역의 적발량은 감소함
- 최근 동남유럽(South-East Europe) 적발량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터키(Turkey)의 엑스터시류(Ecstasy-type substances) 적발이 증가

[그림 2-11]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지역별 현황

Proportion of amphetamine-type stimulant seizures, by region and drug type (2018)^a

(Percentage)



^a Data are preliminary.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2019)

2. 소비(남용)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④ 2017년에 전 세계 성인 인구(15세~64세)의 0.6%인 2,900만 명이 ATS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미 지역에서 성인 인구(15세~64세)의 2.1%가 ATS를 사용하여 가장 만연하였고, 다음은 성인 인구(15세~64세)의 1.3%가 ATS를 사용한 호주와 뉴질랜드임
- ④ 아시아 지역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성인 인구(15세~64세)의 0.2%~1.2%가 ATS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ATS 사용자 수의 3분의 1 이상임
- ④ 미국에서는 2017년 조사 기준, 2016년 한 해 약 580만 명이 제약 흥분제 (Pharmaceutical stimulants, 특히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를 비 의료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됨

※ 미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보다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가 더 만연함
- ④ 2017년 유럽에서는 성인 인구(15세~64세)의 0.5%인 290만 명이 ATS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동유럽 지역에서 성인 인구(15세~64세)의 0.3%인 70만 명이 ATS를 사용한 것에 비해 중·서유럽 지역에서는 성인 인구(15세~64세)의 0.7%인 220만 명이 ATS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중·서유럽에서는 메트암페타민보다 암페타민이 더욱 남용됨
- ④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2016년 조사 기준, 2015년 성인 인구(14세 이상)의 1.4%인 약 28만 명이 ATS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57%가 결정형 메트암페타민⁸을 사용

⁸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은 '크리스탈 메스(Crystal Meth)', 또는 아이스(Ice)라고 불리며 순도가 높고,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은 '야바(Yaba)'로 불리며, 순도가 낮고 다양한 외형과 색을 띠



하였고, 20%가 분말 형식의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으며, 11%가 처방받은 ATS를 비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④ 엑스터시는 주로 고소득 국가의 젊은 계층, 중·저소득 국가의 부유한 젊은 계층이 야간에 유흥을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 ④ 2017년 전 세계 성인 인구(15세~64세)의 0.2%~0.8%인 840만 명 중 4,000만 명이 엑스터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의 성인 인구(15세~64세)의 2.2%가 엑스터시를 사용하여 가장 만연하였고, 다음은 각 성인 인구(15세~64세)의 0.9%가 엑스터시를 사용한 북미 지역과 중·서유럽 지역임

나. 신종 향정물질(NPS)

- ④ NPS의 남용에 관한 자료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마 연초 등과 혼합하여 흡연을 하는 방식이 주 남용 방법이었으나, 4년 전부터 알약 또는 액체를 복용하는 방식 등 남용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
- ④ 주사(주사기)를 사용하여 NPS를 투약하는 마약류 투약자들은 중독의 위험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주사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병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음
 -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주사를 사용하여 NPS를 투약하는 마약류 투약자들이 보고되었음

3. 생산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④ ATS는 합성마약류로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며, 헤로인, 코카인처럼 식물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어 원격 감지 기술 등으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식물성 마약 제조 시설보다 적발이 더 어려움
- ④ 소량의 ATS는 간단한 제조법(Recipe)을 이용해 소위 ‘키친 랩(Kitchen Lab)’이라 불리는 소규모 밀조시설에서 만들 수 있으나, 대량의 ATS는 복잡한 밀조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원료물질과 합성공정이 필요함
- ④ 한정된 제조 관련 정보로 인해 전 세계 ATS 제조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주요 시장의 자료도 제한적이며, 게다가 전통적인 ATS의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NPS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 ATS 시장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36,600개의 ATS 제조 시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96%가 메트암페타민 제조 시설이었고, 2%가 암페타민 제조 시설, 1%가 엑스터시 제조 시설, 나머지는 다른 흥분제 제조 시설임
- ④ 2017년 전 세계에서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제조 시설은 3,661개이며, 이 중 3,036개가 미국에서 적발되었고, 미국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제조 시설이 소규모 밀조 시설인 ‘키친 랩’인 반면, 수출을 위한 산업적 규모의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 시설은 주로 멕시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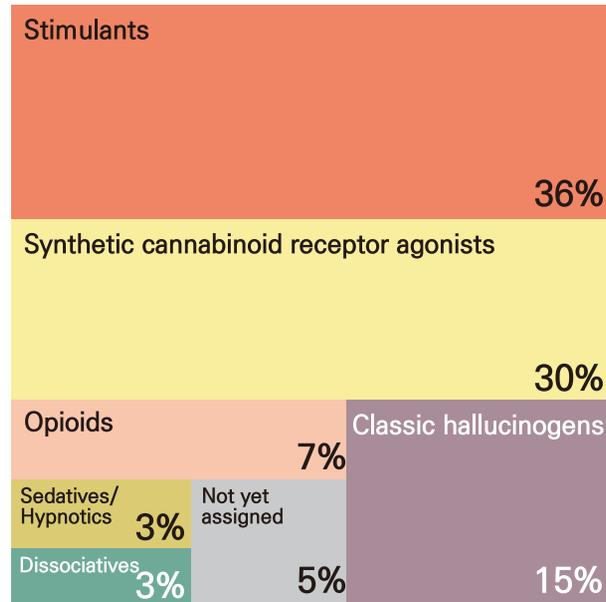


- ④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헤로인 제조 기술자(Heroin producers)가 감기약 또는 현지에서 재배된 마황에서 추출한 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가 있음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개국에서 총 790개의 불법 암페타민 제조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미국, 브라질, 캐나다, 슬로바키아, 벨기에에서는 합법적으로 제조된 암페타민이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된 것이 보고됨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개국에서 총 367개의 엑스터시 제조 시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약 66%가 유럽에서 적발되었고 특히 중·서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4%가 미주 지역, 12%가 아시아, 7%가 오세아니아에서 적발됨
- ④ 최근 엑스터시는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크게 1) 고용량 MDMA의 정제형 엑스터시, 2) MDMA가 함유된 가루형 또는 결정형 엑스터시, 3) MDMA 성분이 없거나 소량인 정제형 엑스터시 등 3가지로 분류됨

나. 신종 향정물질(NPS)

- ④ 2009년까지 확인된 NPS의 수는 166개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 말까지 확인된 NPS의 수는 892개로 2009년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합성 NPS는 868개이며, 합성 NPS 중 38%가 흥분제 계열, 30%가 합성 대마 계열, 7%가 합성 아편 계열임

[그림 2-12] 2018년 말까지 확인된 합성 NPS의 그룹별 비율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 시장에서 확인되는 합성 대마류는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흥분제 계열의 NPS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합성 아편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 ※ 합성 아편류는 2009년에는 1개가 확인되었으나, 2015년에 15개, 2016년에 22개, 2017년에 46개가 확인됨

4. 밀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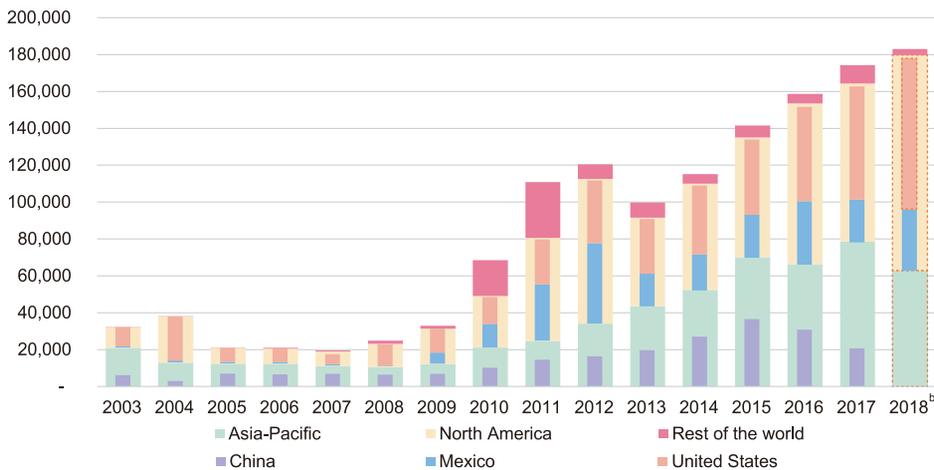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2017년 세계 암페타민 총 압수량은 2016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역대 두 번째 수치이며, 암페타민 밀매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암페타민 총 압수량의 56%가 아시아 지역(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이 51%)에서 압수되었으며 19%가 유럽 지역(중·서유럽 지역이 12%)에서 압수되었고 16%가 미주(미국이 11% 차지)에서 압수되었음
-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지난 20년간 북미 지역과 동·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최근 세계 메트암페타민 총 압수량의 약 49%는 북미 지역에서, 약 42%는 동·동남아시아에서 압수되었음

[그림 2-13] 2003년~2018년 지역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Global seizures of methamphetamine, by region (2003 –2018) ^a

(Kilograms)



^a Data for 2018 are preliminary.

^b At the time of writing, the seizure data from China were not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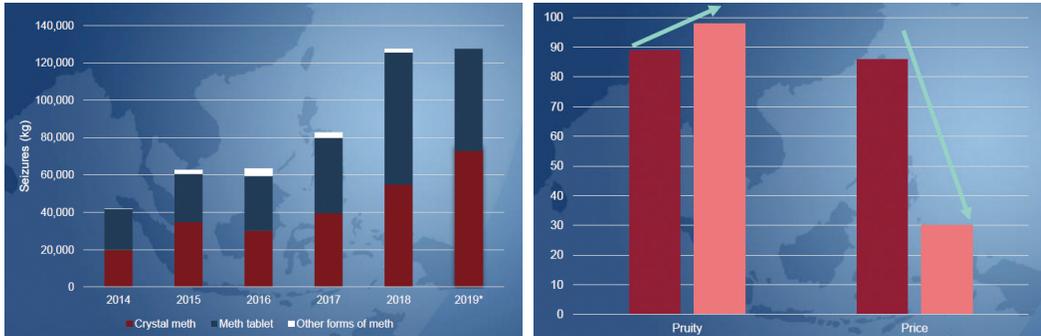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2019)

- 북미 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약 10배 가량 증가 하였으나, 2017년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미국에서 압수되었고 멕시코가 그 뒤를 따름
- 미국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의 97%가 미국 남서쪽 국경지역에서 적발되고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남미, 오세아니아, 동·동남아시아 및 중·서 유럽으로 유입
- 동·동남아시아 메트암페타민 동향으로, ① 압수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 약 40톤 → 2018년 약 120톤)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도 수준 이였고, 중국의 압수량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이외 국가의 압수량은 2016년 이후 급증세(2016년 30톤 → 2018년 100톤)이며, ② 메트암페타민 순도는 높아 지는 반면, 가격은 더욱 하락(태국에서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의 순도는 2008년 90%에서 2019년 약 97%였고, 가격은 2008년 미화 약 90달러에서 2019년 미화 약 30달러로 하락)하였고, ③ 메트암페타민 소비시장 규모는 약 73조원(61.4 billion USD)⁹으로 추정되며, 2019년 규모는 '13년보다 4배 증가하였으며, ④ 밀매(유통) 경로는 미얀마 북부지역(Shan State 등)에서 제조되어 인접한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경유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물론 일본, 호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⁹ 지역별로 구분하면 ①동남아(Southeast Asia) 25.7, ②호주 + 뉴질랜드 11.1, ③중국 10.3, ④동아시아(East Asia, excluding China) 8.9, ⑤ 방글라데시 5.5 (단위: Billion USD)



[그림 2-14] 동(남)아시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왼쪽), (태국의) 순도 및 가격(오른쪽) 추이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제25차 아태지역 약물대책회의(ADEC) 발표자료

[그림 2-15] 미얀마(Kutkai지역) 제조시설(왼쪽) 및 동(남)아시아 지역 유통경로(오른쪽)



④ 엑스터시 압수량을 토대로 보았을 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엑스터시 밀매가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엑스터시의 밀매가 감소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엑스터시 밀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엑스터시의 밀매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중국의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인한 엑스터시 전구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2011년부터는 통제 받지 않는 전 전구체를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밀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밀매가 다시 증가함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엑스터시 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2017년 엑스터시 압수량은 2013년 대비 9배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남미 지역에서는 5배, 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4배, 유럽 지역에서는 3배가 증가함
- ④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7년 2.9톤의 엑스터시가 압수되었는데 이 중 96%가 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됨
- ④ 또한,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과거에는 엑스터시 압수가 제한적으로 보고되던 지역에서도 엑스터시 압수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2017년 엑스터시 압수량이 2013년 대비 약 60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은 40배, 중앙아시아 및 트랜스코카시아 지역은 31배가 증가함

나. 신종 향정물질(NPS)

- ④ NPS 압수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지 않아 압수되지 않거나 UNODC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임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3개국에서 흥분제 계열 NPS가 압수되었는데, 전 세계 흥분제 계열 NPS 압수량의 82%가 유럽 지역(특히 러시아)에서 압수, 14%가 아시아 지역(특히 홍콩)에서 압수됨
- ④ 2016년에는 합성케치논의 압수를 보고한 국가가 증가하였고 전 세계 NPS 압수량에서 합성케치논의 압수량 비율이 30%에 다다랐으며(식물 기반 NPS 제외), 2017년에는 전 세계 합성케치논 압수량이 2016년 대비 4% 증가한 2.8톤이었으며, 이 중 2.7톤이 러시아에서 압수됨
- ④ 한편, 피페라진류(Piperazines)와 아미노인데인류(Aminoindanes)의 2017년 압수량은 2016년 대비 95% 감소함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세

- ①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음
- ② 그러나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페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③ ① 2010년에는 화학박사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② 2012년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③ 2013년에는 호주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및 일반인이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④ 2015년에는 조직폭력배가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⑤ 2016년에는 일반인이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⑥ 2017년에는 명문대 대학원생 등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⑦ 2018년에는 제조 기술자 등이 서울 소재 영세공장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 불검출됨
- ⑧ 2019년에는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완제품 약 1.32kg 및 반제품 약 2.28kg 제조, 대구 소재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됨

나. 향정사범 추세(메트암페타민 등 ATS 포함)

[표 2-3]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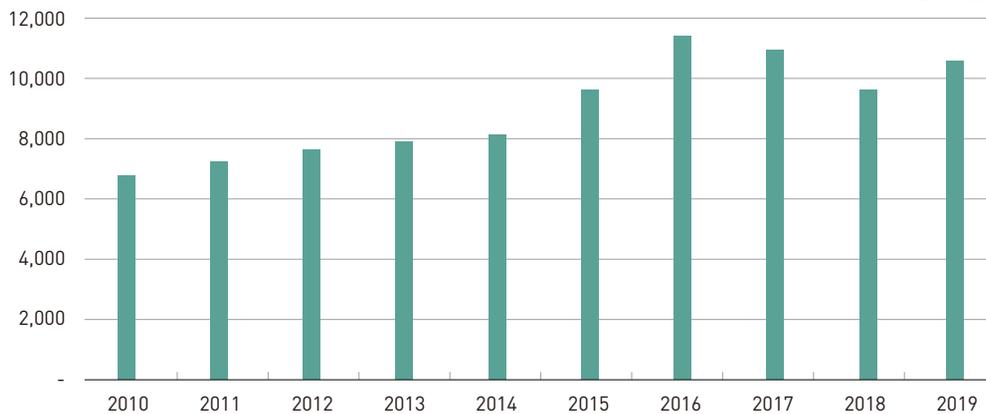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속인원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11,396	10,921	9,613	11,611
증감률(%)	-15.0	6.7	5.6	3.6	2.8	18.5	18.4	-4.2	-12.0	20.8

- 향정사범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었고, 2014년 8,100여명, 2015년 9,600여명, 2016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0,900여명, 2018년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이후 2019년에 다시 11,600여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마약류사범의 72.4%로 국내 주종 마약류임이 확인됨

[그림 2-16] 향정사범 추세

(단위: 명)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사건

- ④ 2008. 5. 중국인이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부산 지검)
- ④ 2008. 10.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수원지검)
- ④ 2008. 12.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카타르에서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에서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에서 필로폰 1kg과 1.7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09. 1.경 대만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1.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09. 2.경 일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액자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3.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3.경 중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987.9g을 책자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8.경 루마니아인이 가나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1.경 싱가포르인 3명이 대만에서 필로폰 1kg을 영양갱과 비누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1.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1. 3.경 루마니아인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1.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4.경 우리 국민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3.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6.경 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2.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9.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3.경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1.4kg을 골프백 밑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7.경 우리 국민이 홍콩에서 필로폰 1kg을 캐리어백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2. 8.경 영국인이 피지에서 필로폰 2.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10.경 우리 국민 6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2. 11.경 독일인이 케냐에서 필로폰 1.8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3. 1.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2.2kg을 신발 6켤레에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3. 3.경 호주인이 필로폰 2kg을 허벅지 부위에 반창고로 붙여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필로폰 1.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성남지청)
- ④ 2013. 4.경 영국인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5.경 일본인 2명이 마카오에서 필로폰 6.2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8.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974g을 기계부품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3. 10.경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12.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5.7kg을 대형 커피머신 2대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3.경 우리 국민 3명이 멕시코에서 필로폰 15.1kg을 라벨링 머신기계 내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전주지검)
- ④ 2014.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4.5kg을 핸드백 9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 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6.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6.1kg을 배낭 등에 은닉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4. 7.경 일본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 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4. 10.경 우리 국민 4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3.7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1.경 대만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2k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3.경 말레이시아인 2명이 홍콩에서 필로폰 4.1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4.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6kg과 발기부전치료제 약 70만 정을 컨테이너 안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5. 8.경 우리 국민 2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18kg을 선박 조리장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10.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에서 필로폰 805g을 화물로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선박 배송 후 인천 부평구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5.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대구지검)
- ④ 2015. 12.경 미성년자인 우리 국민 2명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96g을 복대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6. 1.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3.경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86.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④ 2016. 3.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에서 필로폰 60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4.경 인도인이 태국에서 필로폰 735.04g을 백팩 등받이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6.경 탈북자 출신 등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1,507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④ 2016. 6.경 우리 국민과 미국인이 미국에서 필로폰 686.6g을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6. 10.경 의정부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 이용하여 필로폰 4,122g을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6. 11.경 「말레이시아인 2명 및 필리핀인 1명(국제마약조직원)」과 「대만인 2명(국제마약 유통책)」이 대만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밀수입 (울산지검)
- ④ 2016. 12.경 평택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 이용하여 필로폰 4.1kg을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7. 4.경 대만인이 대만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5.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82.52g을 여행가방 하단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8.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997g을 백팩 등받이 부분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9.경 「대만인 폭력조직원」과 「재일교포 일본 야쿠자」 등이 중국에서 필로폰 16kg을 화물선 통해 밀수입, 8.6kg 압수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2. ~ 8.경 대만 마약조직원들이 일본 야쿠자 및 국내 유통책과 연계하여 대만 등에서 필로폰 약 152.28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대구지검 ·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1.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로폰 약 3.4kg을 캐리어 2개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2.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필로폰 약 5.27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7.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3kg을 신체 및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11.경 우리 국민이 라오스에서 퍼즐매트와 핸드백에 필로폰 약 2.98kg을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9. 11.경 우리국민 2명이 캄보디아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12. ~ 2019. 12. 말레이시아인들이 배낭, 신체, 의료기기, 여행가방, 운동화 등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0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부산지검)

4. 대마¹⁰

1. 세계 동향 개요

- 세계 대마초 적발량은 지속적 감소 추세
 - 2018년 미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적발이 있었음에도 세계 대마초(Cannabis herb) 총 적발량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최대 소비시장인 미주(아메리카)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적발량은 감소 추세임(2018년 지역별로 2017년과 비교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90%, 아프리카 64%, 캐리비언·중남미 55%, 유럽 36%, 북미 34% 각 감소함)
 - 대마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마약류로 2010년부터 2017년 간 전 세계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59개 국가에서 대마 재배가 보고됨
 - 2017년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3.8%인 1억 8,800만 명이 대마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8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임
 - 2017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은 5,109톤으로 2016년 대비 9% 증가하였지만,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1,161톤으로 2016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 미국 내 대마는 연방차원에서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Schedule 1로 금지되어 있으나, 2018년 말을 기준으로 33개 주(州) 및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C.), 괌, 푸에르토리코에서 의료용 목적의 대마사용을

¹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1, "EXECUTIVE SUMMARY", vol.5, "CANNABIS AND HALLUCINOGENS", 제63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발간 자료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abuse",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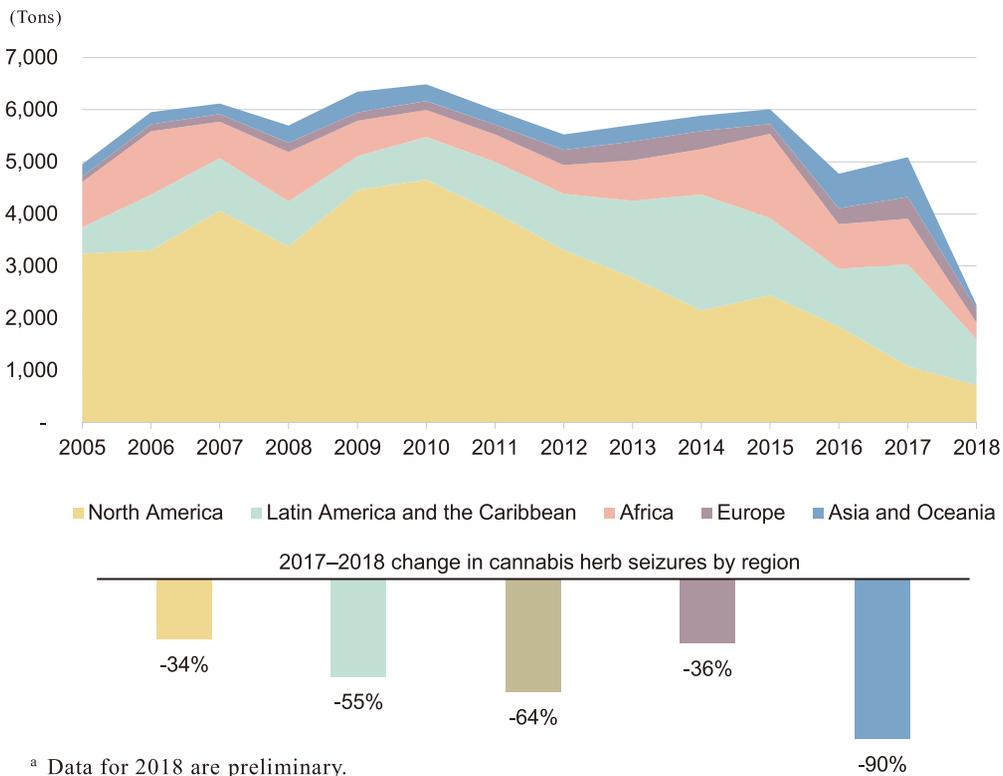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말 미시간주(州)에서 비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 주(州) 등 4개 지역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 C.)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에서 비 의료용 목적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음

④ 대마수지 적발량 감소

2018년 대마수지(Cannabis resin) 생산(Production)은 아프가니스탄 및 모로코 2개국에 집중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72톤(2017년 대비 약 39% 감소)을, 모로코에서 약 165톤(2017년 수준)을 적발함

[그림 2-17] 2005~2018년 지역별 대마초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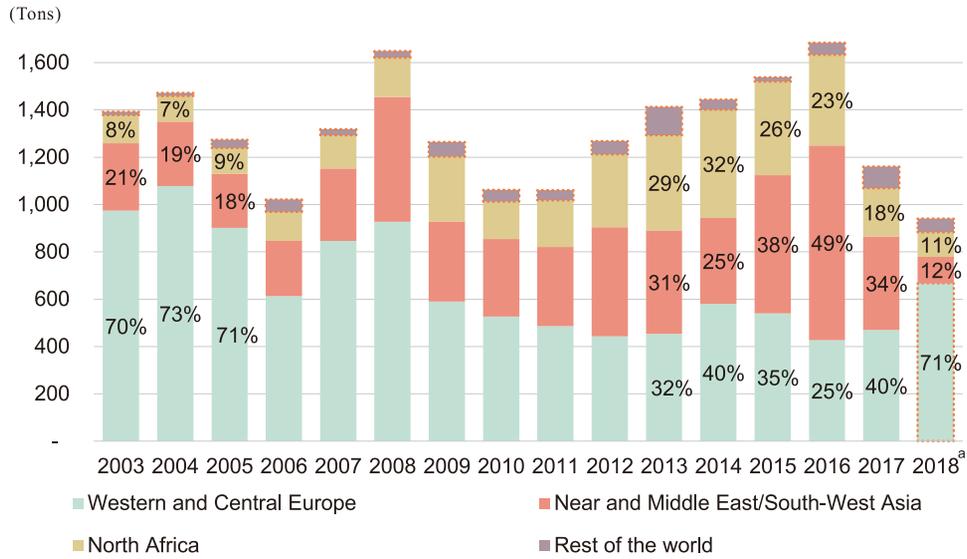
Cannabis herb seized, by region (2005–2018), and the change in regional seizures from 2015 to 2018^a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2019)

[그림 2-18] 2003~2018년 지역별 대마수지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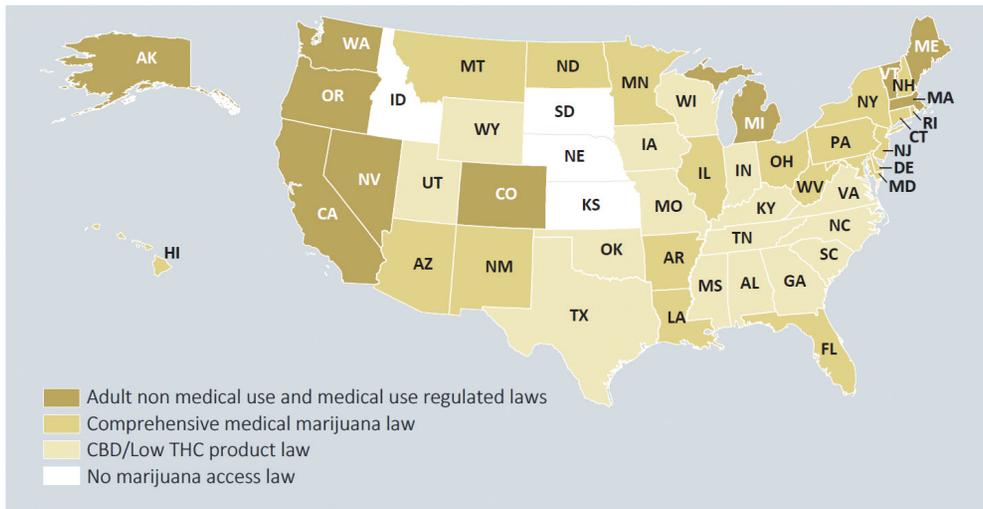
Global cannabis resin seizures, by region (2003–2018)^a



^a Data for 2018 are preliminary.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2019)

[그림 2-19] 미국 대마 사용 합법화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2. 소비(남용) 동향

- ④ 대마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이고, 2017년 세계의 대마 남용인구는 1억 8,800만 명으로 2016년(1억 9,220만 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④ 미주 지역에서 대마 남용인구는 2007년 성인인구(15~64세)의 7%인 4,200만 명에서, 2017년 8.4%인 5,700만 명으로 증가함
 - ※ 이는 미국 일부 주(州)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뿐 아니라 비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추세이고, 캐나다의 비 의료용 대마 사용 허용으로 인해 대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④ 오세아니아 지역인 호주에서의 1998년 성인 인구의 약 18%가 대마초를 남용한다고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④ 지난 10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의 대마 남용률은 성인인구(15~64세)의 6~7%이며, 유럽 지역에서 대마초 남용률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2016년 기준 성인 인구의 11.1%), 이탈리아(2017년 기준 성인 인구의 10.2%), 스페인(2015년 기준 성인 인구의 9.5%), 체코(2016년 기준 성인 인구의 9.5%) 등이 있음

3. 생산 동향

- ④ 대마 재배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59개 국가에서 보고되었지만, 체계적인 측정방식의 부재로 대마 재배 및 생산의 범위와 동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④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미 지역 대마 대량재배 및 생산 국가는 멕시코와 미국이고, 남미 지역 대량재배 및 생산 국가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이며, 미국 내 대마초 최대 공급 지역은 캘리포니아주(州)임
- ④ 동 기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로코와 나이지리아, 중동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여짐
- ④ 모로코의 2018년 대마 재배 면적은 약 47,500ha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마수지의 연간 생산량은 2017년 714톤에서 2018년 426톤으로 2017년 대비 41% 감소했고, 대마초 생산 또한 23,700톤으로 2017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보고됨
-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0개 국가에서 대마 야외 재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55개 국가에서 대마 실내 재배가 보고되어 야외 재배가 실내 재배에 비해 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내 재배가 야외 재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4. 밀매 동향

- ④ UNODC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66개국에서 대마초 및 대마수지를 압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압수량은 약 6,300톤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④ 2017년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은 감소한 반면,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서는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이 증가함
 - ※ 북미 지역의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비 의료용 목적 대마 사용의 합법화 등 법 제정의 변화 때문으로 보임
- ④ 2017년 전 세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의 49%가 미주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18%가 아시아 지역, 17%가 아프리카 지역, 15%가 유럽 지역, 1% 미만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각 압수됨
- ④ 2017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38%가 남미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그 뒤를 이어 북미 지역에서 21%, 아프리카 지역에서 17%, 아시아 지역에서 15%가 압수되었는데,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대마초를 압수한 것으로 기록된 이전 대부분의 연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
- ④ 전 세계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마수지 생산지인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등지에서의 압수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임
 - ※ 반면, 중·서유럽 지역의 2017년 대마수지 압수량은 2016년 대비 약 10% 증가함
- ④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밀매는 생산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대마수지는 대부분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어 중동 및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밀반입됨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표 2-4]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단위 : 명)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속인원	1,837	1,189	1,042	1,177	1,187	1,139	1,435	1,727	1,533	2,629
증감율(%)	7.3	-35.3	-12.4	13.0	0.8	-4.0	26.0	20.3	-11.2	71.5

- 대마 대량 밀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주요 사례로는 ① 2012년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군사우편 이용하여 대마 약 944g 밀수입, ② 2013년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 약 946g 등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대마 약 837g 밀수입, ③ 2014년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대마 약 445g 밀수입, ④ 2015년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에서 대마 약 9kg 적발, ⑤ 2016년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대마 약 863g 밀수입, ⑥ 2017년 우리 국민 2명이 독일 등에서 대마 2.1kg 밀수입 및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1kg 밀수입, ⑦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19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입국하여 밀수입,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2.25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⑧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2.7kg 및 MDMA 약 85g 밀수입,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특급우편 이용하여 대마초 약 1.9kg 밀수입 등임
-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여행자, 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 흡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대마 밀수사건

- 2007. 2.경 우리 국민이 태국 방콕에서 대마 200g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한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08. 1.경 일본인이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¹¹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3.경 러시아인이 러시아 자루비노항에서 해시시오일¹² 약 86.65g을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 (속초지청)
- 2008.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7.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114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제주지검)
- 2009.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마 948g 및 대마수지 12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각 5.1kg, 5.1kg을 나무 조각품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¹¹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¹² Hashish Oil은 해시시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시시 보다 2~3배 정도 강함



- ④ 2009.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쿠키¹³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④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4.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경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쿠키 147.9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200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2.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171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8.경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7.경과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505g을 미군사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수원지검)

¹³ 대마쿠키(weed cookie)는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임



- ④ 2012. 8.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853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진주시청)
- ④ 2012.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944g을 미군사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3. 5.경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 946g 및 해시시 55g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3. 7.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대마 약 837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10.경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에서 대마 100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4.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445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5. 3.경 우리 국민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마 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5.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대마 약 4.5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대구공항으로 밀수입 (대구지검)
- ④ 2015. 6.경 부산세관이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 (선박국적은 파나마)을 수색하여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약 9kg을 적발 (부산지검)



- ④ 2015. 12.경 이집트인이 이집트에서 대마 16.37g 및 대마수지 23.21g을 국제특송 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포항지청)
- ④ 2016. 2.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에서 대마 863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④ 2016. 3.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에서 대마 438.5g을 국제특송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4.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 277.61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④ 2017. 4. ~ 9.경 우리 국민 2명이 독일, 영국, 캐나다에서 대마 약 2.1kg을 국제특송화물 등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 ④ 2017. 5.경 일본인이 영국에서 대마 199.67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대구서부지청)
- ④ 2017. 5.경 우리 국민 4명이 스페인에서 대마 511.39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7. 7.경 우리 국민 5명이 태국에서 대마 151.91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7. 7.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1kg을 국제소포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7. 10.경 우리 국민이 베트남에서 대마 약 1.2kg을 휴대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7. 10.경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 450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12.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 2.2k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④ 2018. 6.경 지방외국인학교 교사인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1.7kg, 대마 초콜릿 4개, 대마 카트리지 10개 등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광주지검)
- ④ 2018. 8.경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2.25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8. 10.경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에서 대마 2.25kg을 여행용 가방 2개에 각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8. 10.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19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9. 5.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대마 약 415g을 국제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홍콩을 경유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제주지검)



- ④ 2019. 7경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k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8경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대마 약 2.7kg, MDMA 약 85g을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11.경 미국인이 나이지리아에서 대마 약 1.25kg을 국제특송화물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